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종이규제에 따른 업계 입장

본지에서는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를 종이 용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각 업체 입장이 어떠한지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1. 서론

환경부는 컵라면 제조업체의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생산단계에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총생산량의 20%를 종이나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컵라면 제조업체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차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켜 2005년부터는 생산량의 30% 이상, 2007년부터는 35% 이상 환경친화적 재질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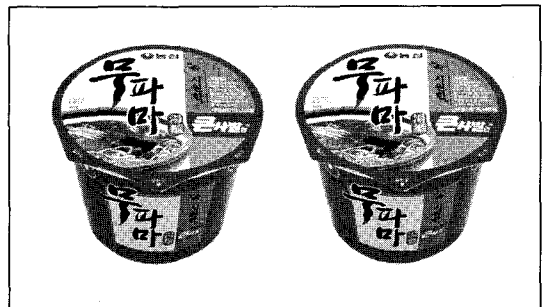
환경부의 취지대로 이 비율을 적용시켜 보면 올해에는 국내 컵라면 생산량 9억2천만개 가운데 1억8천만개가 종이 등 친환경적 재질의 용기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컵라면 생산 제조업체는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의 4개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컵라면 용기 종이 및 친환경 재질로의 전환에 대한 4개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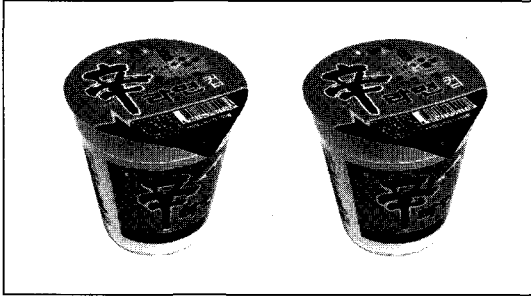
라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농심은 무파마를 종이용기로 출시한 데 이어 지난 5월 3일 신라면컵 용기를 합성수지에서 종이로 대체함으로써 이번 환경부에서 제시한 20%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농심은 큰사발 김치, 사리곰탕, 새우탕 등 19종의 용기면을 출시하고 있다.

종이 컵라면 용기 전환은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 종이 용기로 된 농심 무파마



▲ 종이 용기로 된 농심 신라면 컵

제품의 질, 비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기술적인 연구개발로 식품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합성수지 용기 대체 포장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한다.

농심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합성수지 라면 용기를 종이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며 신소재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국내 라면 수요 중 용기면 비율이 30%(연간 8억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용기면 비율이 증가

되고 있다.

컵, 사발, 도시락 스타일 등 라면제조사의 용기면은 50여 종류가 넘는다.

현재 대부분 용기면의 재질인 PSP(폴리스틸렌)가 인체에 무해하고 제조가 용이하며 가격면에서 저렴하여 그동안 컵 용기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환경친화 제품의 선호와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업계에서도 컵라면 용기재질을 단계적으로 종이용기 등으로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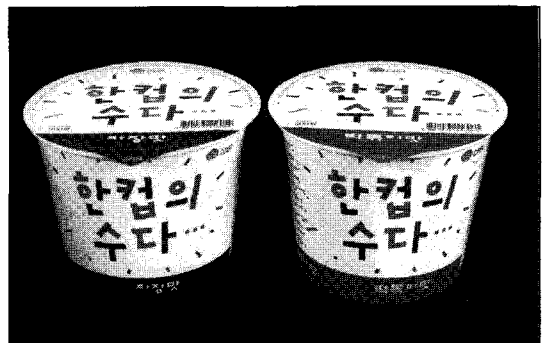
삼양식품은 전년말에 이미 용기면 생산량의 15%정도를 종이용기로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0%정도까지 비율을 늘리고 있다.

현재 종이용기로 생산되는 제품은 2001년 5월부터 ‘한컵의수다(짜장, 떡볶이)’, 2002년부터 ‘삼양큰컵’, ‘삼양큰컵 우동맛’, ‘모밀우동’의 제품이 있다.

삼양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이용기뿐만 아니라 전분, 옥수수재질 등 친환경적인 재질의 원료를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삼양큰컵



▲ 한컵의수다



특 집



▲ 한국야쿠르트의 팔도 비빔면

한국야쿠르트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986년 5월 컵라면 육개장을 출시하면서 용기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현재 육개장, 도시락, 왕뚜껍(짜장, 김치, 우동), 빅3 해물, 큰새우탕과 볶음김치면 등에는 합성수지 PS 재질의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1999년 푸짐한 왕컵을 출시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종이재질의 용기를 도입, 현재 랍스타왕컵, 시원한왕컵, 왕컵진국설렁탕, 뉴트리컵면 등에 종이 재질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추후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종이를 비롯한 친환경 재질로 그 비율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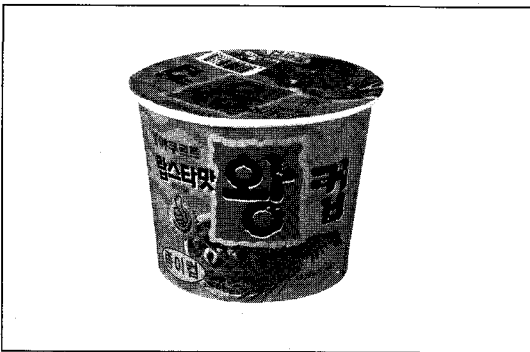
오뚜기

오뚜기는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부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또한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인 합성수지 용기사용에 회의적이었던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오뚜기 라면의 상품 가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종이 컵라면 용기로의 대체를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현재 용기면 13종 중 빨개면(쇠고기맛) 용기와 참깨라면 용기 등 2종의 종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감량화 의무율(60%)을 맞추기에는 용기업체 공급량, 용기 제작 단가의 상승 등 제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오뚜기는 환경부가 제시한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비율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종이 용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2종의 라면이 종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라면



▲ 랍스타왕컵



▲ 종이컵라면 용기로 된 오뚜기 참깨 라면



▲ 합성수지 용기로 된 오뚜기 김치면 곱배기



▲ 합성수지 용기로 된 오뚜기 얼리면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종이 용기로의 대체는 많은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인 합성수지 용기에서 종이 용기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반사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환이다. 현재 라면업계의 종이 용기 사용율은 환경부 감량화 의무율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합성수지 용기가 종이 용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합성수지 용기는 환경호르몬 검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

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뚜기는 이러한 이유로 종이 용기라면은 상품가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종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디자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측면 색상 인쇄 및 가독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색 인쇄까지 가능하게 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종이 용기로의 변환은 용기 단가 상승과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등 관련업계의 막대한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결국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통시 물리적 강도 저하에 따른 파손, 찌그러짐이 발생하는 등 종이 용기의 대체는 긍정적 부분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오뚜기 측은 설명했다.

오뚜기는 현재 2종의 종이컵 제품 이외에도 향후 소비자들의 소형컵 선호도가 높아지고 구매기준이 종이컵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종이용기로 변환을 검토하고 있다.



▲ 합성수지 용기로 된 오뚜기 진리면 매운맛과 순한맛



2. 결론

앞의 내용에서 보듯이 각 업체들은 점차적으로 합성수지 라면 용기를 종이 용기로 전환시켜 환경부가 이번 년도의 종이로의 전환 목표량인 20% 달성이 문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과연 합성수지는 환경에 유해한 것인가?

정부에서는 합성수지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들어 합성수지 연차별적으로 줄이고 다른 재질로 대체코자 하고 있다.

대체재로는 종이 외에도 분해성 재질이나 신소재 개발을 통해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분해성 용기의 가격이 합성수지 용기보다 많게는 배나 비싼 상황에서 가격인상을 초래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500년 이상 걸려야 분해되는 합성수지 용기의 대부분이 매립·소각되는 상황에서 토양·수질·지하수 오염과 매립지 관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분해성 재질이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신소재 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뜻을 같이 했다. 

롤 막힘 완전 해결!!

롤(roll)막힘, 오염, 기타 세척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바로 click 하십시오.

www.yerim.com



세척서비스

- Biojet(완벽한 물리적 세척)
- 장착상태로 세척
 - 탈착하여 세척

세정액

- Biojet(화학적 세척)
- 인체에 무해한 무용제 타일
 - 수성임크용, 유성임크용, UV임크용

셀 막힘 테스트

- 오염정도를 확인가능
- Ravol (셀 응적측정 장비)

보조 부품

- 브러시 (효과적인 세척)
- 스테인레스 솔 : 세라믹롤용
 - 구리 솔 : 크롬롤용
- 휴대용 현미경(100배)

문의상사

전화 : 031-424-4505 팩스 : 031-423-8169

Home page : www.yerim.com e-mail : kicho1@yerim.com